

선에서 벗어나...



스페인 렌터카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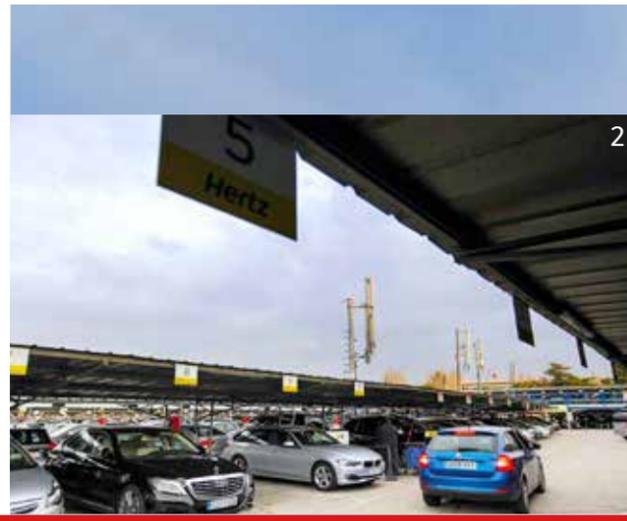
선(線)에서 벗어나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정해진 노선만을 다니는 기차와 비행기, 버스 여행에서 벗어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럽 구석구석을 다녀보자. 대중교통 시간에 맞출 필요도 없으며 여러 명이면 교통비도 아낄 수 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요즘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동차 여행의 최적지 중 한 곳이 바로 스페인이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절벽 위의 성채 론다를 가다



1 마드리드국제공항의 렌터카 부스
2 여행객을 기다리는 렌터카들
3 론다 구시가지 풍경



론다는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 자치지역에 있다. 마드리드로부터 거리는 550km나 된다. 기차와 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지만 가족여행의 경우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트렁크를 끌고 갈아타기가 싫어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무엇보다 스페인에서 캠핑을 체험하고 싶었다. 경량 텐트와 가벼운 덕다운 침낭도 챙겨오지 않았다. 겨울의 끝 무렵 론다의 평균기온은 섭씨 13~14도가량으로,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비슷해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쉬지 않고 달리는 스타일이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번 화장실을 들른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내달렸다. 얇은 구름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 한국의 풍광과는 사뭇 달랐다. 그래도 저 멀리 높은 산이 가끔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한국과 유사하다. 종일 달렸는데도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 나절이었다. 론다 시내를 스치듯 지나쳐 바로 엘수르(El Sur) 캠핑 리조트에



1



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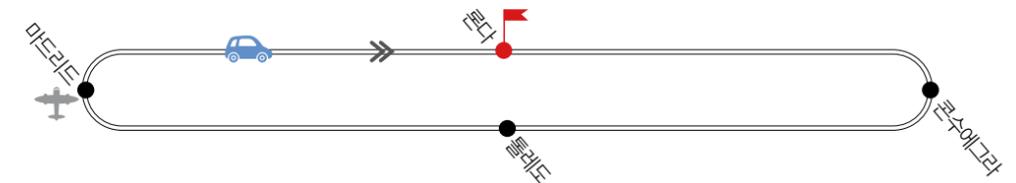
1 론다 구시가지로 통하는 성문 2 수도원이나 고성 등을 개조해 만든 특급 숙박시설 파라도르(Parador) 3 론다의 투우장 앞,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마차가 서 있다. 4 론다 시내의 캠핑장 안내판 5 누에보 다리 밑을 바라보는 관광객들



4

도착했다. 캠핑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시내 곳곳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캠핑장은 수십 년 된 올리브 나무가 곳곳에서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서둘러 텐트를 설치한 뒤 해 질 무렵 다시 시내로 향했다.

론다에서 가장 멋진 장소는 역시 절벽과 절벽 사이에 지어진 누에보 다리다. 다리의 높이는 무려 100m나 된다. 보는 순간 그 누구라도 탄성을 지를 만큼 웅장하다. 론다는 기원전 6세기 켈트족이 세운 마을로, 로마 점령기를 거쳐 요새화한 곳이다. 거친 산악 지대에 세워진 도시의 모습이 아름답다. 석양과 조명에 붉게 물든 다리와 주변 풍경은 평소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사실 가장 멋진 숙소는 다리 옆에 있는 파라도르(Parador)다. 파라도르는 수도원이나 고성 등을 개조한 스페인 고유의 초특급 숙박 시설이다. 우리나라도 고궁을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고성 등을 활용한 숙박 시스템을 도입한 곳들이 많다. 특히 론다 파라도르는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곳이라 머물러보고 싶었지만, 캠핑 때문에 과감히 포기했다.



“론다에서 가장 멋진 장소는 역시 절벽과 절벽 사이에 지어진 누에보 다리다. 다리의 높이는 무려 100m나 된다. 보는 순간 그 누구라도 탄성을 지를 만큼 웅장하다. 론다는 기원전 6세기 켈트족이 세운 마을로, 로마 점령기를 거쳐 요새화한 곳이다.”



1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 2 올리브나무 아래에 설치된 텐트
3 맛갈스러웠던 소꼬리찜 4 캠핑장의 개수대 시설

장엄한 일몰을 보고 나니 갑자기 허기가 졌다. 점심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며 달렸던 탓이다. 저녁 식사를 캠핑장에서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시내에서 맛집을 찾기로 했다. 우연히 발견한 레스토랑에서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꼬리찜 같은 메뉴다. 혹시나 해서 시켜봤는데 대성공이었다. 한국식 소꼬리찜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풍미가 훌륭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한 탓에 캠핑장에서 온수로 샤워를 한 뒤 쓰러진 듯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캠핑 리조트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리조트라는 말이 어울리게 숲속의 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바로 앞에 전기선을 빼 쓸 수 있는 배전반이 있었고, 화장실에도 온수가 나온다. 심지어는 캠핑리조트 내 레스토랑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천천히 리조트를 둘러보며 아침을 보낸 뒤 전날 제대로 즐기지 못한 론다 시내 구경에 나섰다. 시간이 없어 잘 살펴보지 못했던 누에보 다리 아래쪽까지 내려가 산책도 즐겼다. 마을 가운데는 하얀색 투우장 건물이 있었다. 알고 보니 론다는 투우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투우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이다. 천천히 시내를 구경한 뒤 돌아와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은 뒤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썼다. 렌터카 여행을 통해 여행 경비를 아끼는 방법이다. 유럽 여행의 경우 특히 식비에 부담이 많다.



돈키호테의 고향 콘수에그라
중세 도시 톨레도



자동차 여행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보통 원을 그리듯 루트를 짜는데 이번에는 일정도 짧은 데다 목적지의 위치가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왔던 길을 되돌아 마드리드 쪽으로 향했다. 라만차 지방의 콘수에그라는 흔히 돈키호테의 풍차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10여개의 풍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소설 속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스페인에서 위인 2명을 꼽으라면 한 명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다른 한 명은 작가 세르반테스라고 한다. 세르반테스는 소설 돈키호테를 통해 스페인을 전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시켰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풍차들이 있는 곳이 라만차 지역의 콘수에그라다. 이곳은 차가 없으면 다녀오기가 무척 번거로운 곳이다. 서둘러 차를 몰았는데도 오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아침에 출발해 도착하니 이미 늦은 오후였다.



2

1 반려견과 함께 석양을 즐기는 현지인 2 풍차 내부로 들어서는 관광객
3 풍차가 즐비한 콘수에그라



허겁지겁 언덕 위로 올라갔더니 조금은 황량한 느낌이다. 세르반테스가 소설을 썼을 때도 이렇게 황량한 언덕 위에 풍차만 있었을까. 부드러운 석양빛을 받으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활강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더들을 보는 것도 좋았다. 돈키호테가 돌격했던 거대한 풍차의 내부로 들어가 봤다. 꽤 세밀하게 꾸며져 있다. 스낵과 마그네틱 같은 자그마한 소품을 팔고 있다. 밖에 우두커니 앉아 풍차와 석양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념에 젖었다. 짧은 일정 속에 망중한의 여유가 더없이 소중한데. 바람이 차가워지자 야경 사진 몇장을 찍고 바로 내려와 톨레도로 향했다.



“톨레도는 서고트왕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르네상스 때에는
스페인의 예술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톨레도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성(城) 알카사르는 8세기부터 약 400년 동안
이곳을 지배한 이슬람 세력이 세운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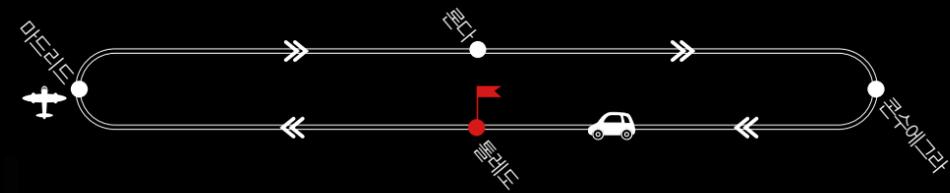




- 1 톨레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성(城) 알카사르
- 2 톨레도 파라도르 내부
- 3 톨레도 대성당의 야경
- 4 톨레도 파라도르 객실
- 5 세르반테스 동상



3



좀 무리해서 밟았더니 1시간 반쯤 걸렸다. 톨레도에서는 그동안 버리고 별렀던 파라도르에서 숙박을 하기로 했다. 캠핑을 즐기더라도 마지막 날은 늘 조금은 럭셔리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을 여행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베란다 밖으로 나섰니 톨레도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짐을 끈 뒤 톨레도 시내로 나갔다. 톨레도 파라도르의 레스토랑이 호평을 받고 있었지만, 왠지 시내 경치도 즐기며 식사를 하고 싶었다. 톨레도는 서고트왕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르네상스 때에는 스페인의 예술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톨레도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성(城) 알카사르는 8세기부터 약 400년 동안 이곳을 지배한 이슬람 세력이 세운 건축물이다. 1천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견고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 역시 세르반테스 동상이 서 있다. 허기가 저 카페에 들어갔더니 모든 고객이 TV를 보며 축구 응원에 들떠있다. 타파스 등을 간단히 먹고 톨레도 대성당 등을 둘러본 뒤 숙소로 돌아와 서둘러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가야 할 곳은 이제 공항이다. 3박 4일간의 짧은 스페인 자동차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⑤

INFORMATION

스페인은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다. 기름값은 한국과 비슷하다. 주유할 때는 미리 점원에게 말하는 곳도 있고, 기름을 넣은 뒤 지불하는 곳도 있다. 스페인 남부는 늦겨울에서 봄 사이가 오히려 성수기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파라도르도 1박에 15만원 선에서 숙박할 수 있다. 론다의 엘수르 캠핑 리조트는 A-369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캠핑 비용은 1박에 3만원가량이며, 2베드 아파트(숲속의 집)는 8만원가량이다.